

## 한국어 친족어의 변화\* -동기 관계어를 중심으로-

이 기 갑  
(목포대학)

### Abstract

**Lee, Ki-gap. 2007. The Change of Kinship Terms for Siblings in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5(1). It is very natural to assume that almost all languages of the world have the kinship terms for the siblings of the same blood. Generally sex and age are the main factors to determine the terms for the siblings. It is possible to classify eight types of the sibling terms on the basis of sex and age of the alter. Among the eight types, however, only three are very common and the other five types are logically possible but rare in reality.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postulate two universal principles to determine the types of sibling terms : (a) Sex has priority over age. (b) Less terms are used for the younger alters than the elders. Though the Korean kinship system of the siblings acts up to the principles, it shows some peculiarities compared to the systems of other languages. While most languages use the factors of sex and age of the alters to divide the relations of siblings, Korean adds the sex of the ego to these factors. If the ego and the alter are of the same sex, two terms on the basis of age are necessary to refer to the younger and the elder alters in the Middle Korean. On the contrary, if the ego and the alter are of the different sex, the heterosexuality functions as a distinctive factor and only one term is

\* 이 논문은 목포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발표회(2006년), 한국언어학회(2006년 12월), 한글학회 전남/경북 합동발표회(2007년 2월), 사회언어학회(2007년 4월)에서 발표되었고 그때마다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말을 받기도 하였는데, 특히 양경모, 김차균, 김정수, 전태현, 김재봉, 이은희, 왕한석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귀한 조언을 해 주셨다. 이 논문의 핀란드어에 대한 정보는 정도상, 아랍어는 정규영, 드라마디어는 박정석 선생님께서도 도움 받은 것이다.

used to the alters, for whom the factor of age doesn't work. The factors affecting the system of sibling terms have changed from the Middle Korean and the homosexuality of ego and alter doesn't work any longer in the contemporary Korean. In addition to this change, the semantic shifts of *dongsaeng*(sibling), *nui*(sister) and *orabi*(brother) also contribute to build the new sibling system of Korean.

**Keywords:** kinship term, sibling, Middle Korean, sex, age, universal principle

## 1. 머리말

친족어는 친족 관계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친족 관계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족 속에서 자라고,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간관계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친족관계란 어떤 사람, 어떤 민족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인 셈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언어적으로 투영될 때에는 민족마다, 언어마다 차이가 나게 된다. 마치 자연 성(sex)이 인간언어에 반영되는 양상이 언어에 따라 언어적 성(gender)으로 달리 구조화되는 것처럼 친족관계의 구체적 표현 양상도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보편적 친족관계의 구체적 망(network) 또는 구조화의 양식이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친족 관계'와 '친족어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족어 관계란 곧 친족 관계가 언어에 투영된 관계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세계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동기 관계어(이하에서는 '동기어'라 줄여 부른다)들을 검토하여 동기어 결정에 작용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유형론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유형론적 기반 위에서 중세 한국어 및 현대 한국어의 동기어들을 살펴보고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기어가 겪었던 변화를 추적해 보려 한다. 개별 동기어들의 통시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조항범(1996)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바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동기어 체계를 강조하고, 특히 동기어의 변화 과정에 유형론에 바탕을 둔 보편적 원리가 작용하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방언에 나타나는 동기어를 비교하여 동기어 관계의 구조화가 방언에 따라 달리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동기어의 지칭만을 다루려고 한다. 호칭은 지칭을 바탕으로 '부름'이라는 의미적 속성이 포함된 유표적인 것이므로 체계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2. 동기어의 유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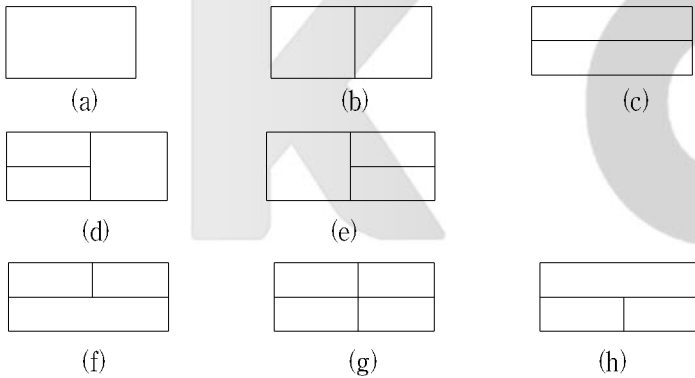
동기간의 지칭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기준인’(ego)과 ‘대상인’(alter)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기를 지칭하는 사람이 기준인이며, 기준인에 의해 지칭되는 상대는 대상인이다. 예를 들어 ‘철수의 누나’에서 철수는 기준인이고 그 누나는 대상인이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동기를 지칭할 경우, 적용되는 변수는 성(sex)과 나이(age)이다. 여기서 성은 대상인의 성을 가리키며 나이는 기준인과 대상인 사이의 상대적 나이를 가리킨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이 \ 성	+MALE	-MALE
+HIGH	a	c
-HIGH	b	d

<그림 1> 동기어 결정에 작용하는 변수

이 a, b, c, d는 언어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친족 관계이지만, 이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동기어로 지칭하는가의 문제는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위의 네 가지 동기어의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우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 가능한 동기어의 분화 양상

(a)는 하나의 동기어로 네 가지의 동기 관계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이다. Hjelmlev(1959)와 이를 반영한 허웅(1981:220) 등에서는 말레이시아어의 saudara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말에서는 손위의 남자 동기를 abang, 손위의 여자 동기는 kakak, 손아래 동기는 adik으로 부르므로 saudara를 전형적인 동기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saudara는 원래 <하나>를 뜻하는 sau와 <공기 또는 자궁>을 뜻하는 dara의 합성어로서 마치 한국어의 '동기'(同氣)와 같은 말로 보인다.<sup>1)</sup> 따라서 (a)와 같은 체계는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말레이시아어의 경우처럼 보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b)와 (c)는 나이와 성의 변수가 각각 하나씩 작용하여 동기어를 구분하는 경우이다. (b)는 성에 의한 구별인데, 영어의 brother/sister가 이런 예이다. 영어 외에 인구어의 대부분이 이런 체계를 가지며, 그밖에 아랍어, 벵골어, 핀란드어가 이러한 체계를 보여 준다.

(c)는 대상의 남녀를 불문하고 단지 나이에 의해 상위와 하위의 동기어를 구별하는 경우인데, (b)와는 달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고대 중국어, 그리고 그것의 후대 방언형인 중국 호남성 방언에서 (c)와 같은 체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 고작이다. 周振鶴/遊汝杰(1986:226-227)에 의하면, 중국의 고대 동기어에서 남녀의 성 구별은 일차적 변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단지 나이에 의해서 兄과 弟가 구별되었고, 여성인 경우 여기에 女를 덧붙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누나'나 '언니'는 女兄, 여동생은 女弟로 불렸다. 이런 체계는 한나라 때까지 지속되다가, 한나라 이후에 남녀의 성 구별이 생기게 되면서 姐姐(누나/언니), 妹妹(여동생)라는 호칭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친족어에 성 구별이 없는 것은 동기어뿐이 아니다. 고대 중국어에서 조부모는 모두 祖, 부모는 모두 親으로 통칭되다가 한나라 이후에 성에 따른 할아버지(爺爺)<sup>2)</sup>, 할머니(奶奶), 아버지(爸爸(젊은 층)/爹爹(노년층)), 어머니(媽媽, 娘)와 같은 구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성의 구별이 없는 체계는 오늘날에도 중국 호남성 악양 일대에서 찾아진다. 이 지역에서는 남성 호칭만 있고 여성 호칭은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嬸라 하는데 어머니

1) 허웅(1981)에서는 sudara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saudara라고 한다. 말레이시아어에 동기어에 대한 정보는 홍석준, 진태현 교수로부터 도움 받은 것이다.

2) 옛날 말투나 문어체에서는 祖父가 쓰인다. 할머니의 祖母, 아버지의 父親, 어머니의 母親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어의 친족어에 대한 정보는 대학원생 liu xiaoli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역시 같다. 굳이 성 구별을 하려면 남자에는 大, 여자에는 細를 써서 大爺, 細爺로 불린다. 동기어에서도 오빠/형/누나/언니 등 손위의 형제자매들을 모두 哥哥, 남동생/여동생 등 손아래 형제자매는 모두 老弟라 한다. 작은아버지는 細爺, 이모도 細爺라 한다.<sup>3)</sup>

이러한 고대 중국어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c)와 같은 구조가 흔하지 않은 것은 인간 언어의 동기어 결정에서 ‘성이 나이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작용된 결과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 원리는 성과 나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수만 적용될 경우, 그때는 대체로 성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만약 어느 언어에서 나이의 변수가 적용된다면 그 언어는 성의 변수가 이미 적용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원리에 예외인 중국어를 고려하면, 이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d)-(g) 그리고 (h)는 성과 나이의 두 변수가 모두 작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작용의 강도에 따라 (d)-(g)와 (h)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h)처럼 성과 나이가 모두 공동으로 작용하여 네 개의 동기어가 발달한 경우인데, 중국어, 일본어, 헝가리어, 드라비다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현대 중국어의 경우, 哥哥(형/오빠), 弟弟(남동생), 姐姐(누나/언니), 妹妹(여동생) 등처럼 네 개의 호칭이 각각 완전히 변별적인 형태를 지닌다. 반면 일본어는 ani(형/오빠), ane(누나/언니), oto:to(남동생), imo:to(여동생)처럼 네 개의 동기어가 발달하였으나 형태상의 유연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ani와 ane가 한 묶음으로 묶이고, 반면에 oto:to와 imo:to가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어는 (h) 체계이면서도 (c)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d)-(g)는 네 개의 가능한 동기어 가운데 두 개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f)는 몽골어<sup>4)</sup>, 스와힐리어<sup>5)</sup>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대 한국어도 기준

3) 여기서 細는 [여성]과 [아랫사람]의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4) 몽골어도 대상인의 성과 나이에 의한 분화를 보이는데, 그 구조는 한국어와 같다. 즉 ‘형’이나 ‘오빠’에 대해서는 aqu, ‘누나’와 ‘언니’에 대해서는 ‘egeci’, 그리고 남동생은 duu, 여동생은 okin-du인데 이때 ‘okin’은 원래 <딸>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이때의 okin은 여성 표지로 기능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몽골어는 동생을 성에 관계없이 du(u)라고 부르는 셈이므로 동기어의 분화 구조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된다. 몽골어에 대한 정보는 정제문 교수로부터 도움 받은 것이다.

5) 스와힐리어에서 dada는 형/오빠, kaka는 누나/언니, mdogo는 동생을 가리킨다. mdogo는 다시 mdogo wa kiume(child of man), mdogo wa kike(child of woman)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 스와힐리어에 대한 정보는 권명식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인의 성이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f)의 체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f)가 손위의 동기를 성에 의해 구별하고, 손아래 동기는 성의 구별이 없는 경우라면 (g)는 이와 달리 손위의 동기에서 성의 구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아래보다는 손위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g)의 체계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체계를 갖는 언어가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언어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한다.

(d)와 (e)는 남성과 여성의 어느 한쪽에 나이의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과연 (d)와 (e)의 어느 한 체계만을 갖는 언어가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이 두 체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존재한다. 바로 중세 및 근대의 한국어에서 이러한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기준인의 성과 연동하여 (d)와 (e)가 선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a)-(h)의 분화 가운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b), (f), (h)의 세 가지이다. 나머지 분화 (a), (c), (g)는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d)와 (e) 역시 홀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한국어처럼 두 체계가 쌍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동기어의 분화 구조와 범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분화구조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를 동기어의 분화에 아래와 같은 보편적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A) 성이 나이보다 우선한다.

(B) 손아래는 손위보다 더 세분되지 않는다.

(A)의 원리는 대상인에 먼저 적용되고 이어서 기준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적용 순서에 따라 '대상인의 성 > 대상인의 나이 > 기준인의 성'과 같은 우선순위가 설정될 수 있다. 이 우선 순위는 오른쪽의 변수가 적용되는 언어는 왼쪽의 변수를 반드시 적용 받기 마련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처럼 기준인의 성이 동기어의 변수로 쓰인 언어는 대상인의 성과 대상인의 나이는 자동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 우선 순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고대 중국어와 같은 예외가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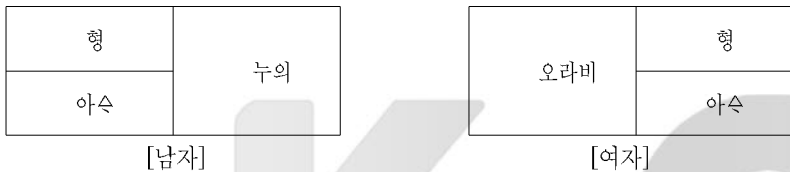
한편 원리 (B)는 인간이 손아래보다는 손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편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원리 (B)에 따라 어떤 언어에서 손아래에 분화된 동기어가

쓰일 경우 순위 역시 당연히 분화된 동기어를 사용하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체계들은 모두 대상인의 성과 나이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대상인의 성과 나이 외에 기준인의 성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언어이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세계의 여러 언어와 달리 세 개의 변수가 작용하는 매우 특이한 언어인 셈이다. 물론 기준인의 성을 변수로 할 경우 대상인의 성과 나이는 자동적으로 변수에 포함되게 되는 것은 앞에서 설정한 보편적 원리 (A)가 예측하는 바인데, 한국어 역시 이 원리를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 동기어의 분화에 관여하는 변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어(3) > 중국어/일본어/몽골어/헝가리어/드라비다어/Seneca어<sup>6)</sup>/스와힐리어(2) > 인구어/아랍어/벵골어/핀란드어/고대 중국어(1)’의 순이 될 것이다.

### 3. 중세 한국어의 동기어 체계.<sup>7)</sup>

한국어의 동기어는 기준인의 성이 작용하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기준인의 성에 따라 두 개의 분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림 3> 중세어의 동기어 체계

중세어의 동기어는 현대어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형’은 대상인의 성에 관계없이 순위 동기를 가리키는 데 쓰였다.<sup>8)</sup> 아래 예 (1)에 쓰인 ‘형’은 모두 대상인이 여자인 경우이다. 물론 현대어에서도 노년층 화자 또는 방언에 따

6) 미국 인디언어의 하나인 Seneca어에 대한 정보는 Leech(1974:239)로부터 얻은 것이다  
 7) 후기중세 한국어의 동기어 하나하나의 용법에 대해서는 조항범(1996)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기준인의 성에 따른 동기어 체계가 서로 거울상을 이룬다는 점은 이 글에서처럼 그림으로 보일 때 쉽게 파악된다.  
 8)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고대 중국어에서의 兄의 용법이기도 하다.

라서 대상인이 여자인 경우 ‘언니’ 대신 ‘형’을 쓰는 수가 있다. 또한 ‘처형’(妻兄)이나 ‘형부’(兄夫)와 같은 단어에서는 ‘형’의 이러한 용법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대 중앙어에서는 ‘형’의 이러한 용법을 ‘언니’가 맡게 되면서 오직 순위 남자 동기를 가리키는 경우로 제한되게 되었다.

- (1) a. 안해는 어딘 아버지 형이 잇고(여훈 하:29a)  
 b. 브릇 겨집중이 同輩 므들 널오디 형이라 호고(가례언해 2:28a)  
 c. 우리 어머니는 형이오 더의 어머니는 아시라(번역노걸대 상 16b)

아우의 옛말 ‘아스’도 형과 마찬가지로 중세어에서는 대상인의 성에 관계없이 손아래 동기를 가리키는 데 쓰였다. 오늘날에도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일부 남아 있으나, ‘아우’ 자체가 ‘동생’에게 밀리면서 전통적인 용법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예 (2)는 『번역노걸대』에서 확인된 것인데, ‘형’과 ‘아스’가 모두 여자의 대상인에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우리 어머니는 형이오 더의 어머니는 아스라(번역노걸대 상 16b)

‘형’과 ‘아스’가 성에 무관하게 쓰였다면 ‘누의’와 ‘오라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쓰였던 것이 중세의 용법이었다. 즉 ‘누의’는 여자 동기, ‘오라비’는 남자 동기를 가리켰다. 현대어에서 ‘누의’나 ‘오라비’라는 낱말 자체가 점차 다른 동기어(‘누나’, ‘오빠’, ‘동생’ 등)에 의해 대체되어 가는 형편이므로, 오늘날에는 예스러운 말 또는 시적인 말들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은 중세어에서 확인된 ‘누의’인데, 본문의 한자가 妹임을 고려하면 여동생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는 순위와 손아래 모두에 걸쳐 ‘누의’가 쓰이며, 나이를 나타내려면 ‘뭇’과 ‘아스’를 붙여 순위와 손아래를 구별하였음을 보여 준다.<sup>9)</sup> 한편 예 (5)는 ‘누의’를 높이기 위해 ‘누의님’이 이미 15세기에 사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누의님’은 후대에 ‘누님’으로 바뀌면서 순위의 여자 동기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누의’는 점차 손아래의 여자 동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지칭 범위가 제한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9) ‘뭇’은 동기 가운데 첫째를 가리키는 것이 기본적인 용법인데, 순위를 가리키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 용법의 확대로 해석된다.

- (3) 아스와 누의와는 각각 어드러 가니오(弟妹各何之)(두시언해 초간 8:28)
- (4) a. 동성 똥누의(姉), 동성 아스누의(妹)(번역노걸대 하 33b-34a)  
 b. 똥누의(姉), 아오누의(妹)(노걸대언해 하 30b-31b)<sup>10)</sup>  
 c. 이는 성이 금개니 이는 내 아비동성누의와 어피동성오라비게 난 형이오(번역노걸대 상 15b)  
 d. 이는 小人의 아비누의 어피 오라비게 난 형이오(노걸대언해 상 14ab)
- (5) a. 네 아드러 各各 어마님내 뵈옵고 누의님내 더브러 즉자히 나가니(월석 2:6)  
 b. 누의님 니르디 말라(번역박통사 상:48)

‘누의’와 마찬가지로 ‘오라비’ 역시 중세어에는 나이에 무관하게 남자 동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므로 굳이 나이차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누의’와 마찬가지로 ‘똥’과 ‘아스’를 붙여 표현하였던 것이다. 예 (6)과 (7)이 ‘오라비’의 이러한 용법을 보여 준다. 한편 (8)의 ‘오누의’는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남매간을 가리킬 뿐 남자 동기와 여자 동기 사이의 나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곧 ‘누의’와 ‘오라비’가 본시 나이에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현대어에서 ‘오라비’가 손위 남자 동기에 주로 쓰이며, 손아래 남자 동기에 대해서는 ‘동생’이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오라비’의 지칭 범위가 손위의 나이로 제한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변화는 ‘아스 > 동생’의 대체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6) a. 이는 성이 금개니 이는 내 아비동성누의와 어피동성오라비게 난 형이오(번역노걸대 상 15b)<sup>11)</sup>  
 b. 이는 小人의 아비누의 어피 오라비게 난 형이오(노걸대언해 상 14ab)
- (7) a. 저머서 아바님 일호시고 똥오라비 客卿이 양노 호더니(少喪父母兄客卿敏慧)(내훈 초간 상 :40)  
 b. 姨兄(엄의겨집동성에 난 똥오라비라)(소학언해 6:46)

10) 노걸대언해는 17세기 문헌이므로 근대국어를 반영하지만 참고로 여기에 그 예를 들었다. 이하 역어유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1) ‘아비동성누의’는 ‘고모’이며, ‘어피동성오라비’는 ‘외삼촌’이다.

c. 그 시절의 太后的 아스오라비(太后弟)(번역소학 9:38)

(8) 오누의게 난 형(역어유해 상:57)

이상에서 보듯이 중세어의 동기어는 현대어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그 분화 구조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준인이 남자인 경우는, 남성 동기를 가리킬 때 ‘형’과 ‘아스’처럼 나이에 의한 분화를 보이고, 반면 여성 동기에는 ‘누의’라는 단일한 지칭어를 사용한다. 기준인이 여자인 경우 그 분화 구조는 남자인 경우와 거울상(mirror image)을 보인다. 즉 남성 동기를 통칭하여 ‘오라비’라 하고, 동성의 동기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형’과 ‘아스’로 분화한다. 이것은 곧 기준인의 성에 비추어 同性일 때에만 이를 나이에 의해 하위 구분함을 말해 준다. 기준인과 대상인이 異性일 때는 성이 변별적으로 작용하므로 굳이 나이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 한국어의 동기어 분화에 ‘성이 나이보다 우선한다’는 보편적 원리 (A)가 적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기준인과 대상인의 同性 여부가 우선적으로 비교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성이면 나이의 변수가 이차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현대 한국어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물론 기준인의 성에 따라 동기어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준인과의 同性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4. 동기어의 변화

##### 4.1 ‘동생’의 의미 변화

중세어와 근대어에서 ‘동생’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다>를 뜻하여, 홀로 쓰일 경우 오늘날의 ‘동기’, 접두사처럼 쓰일 경우에는 오늘날의 ‘친(親)’에 대응한다. 아래 예 (9)와 (10)의 예들이 이를 보여 준다. 특히 (9)에서는 ‘동생형’과 ‘동생아스’가 보이는데, 현대어 같으면 모순되거나 동어반복으로 이해될 만한 예들이다. 이런 예들은 곧 당시의 ‘동생’이 현대와 달리 한자어 同生의 원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말해 준다.

(9) a. 아비동생똥형 아비동생아스 동생형 동생아스 동생똥누의 동생아스누의 ...(번역노걸대 하 33b-35a)

- b. 아비뫓형 아비아으 형 아으 뫓누의 아으누의 ...(노걸대언해 하 30b-31b)
- c. 이숙고 아스과 동싱의 즈식달히 세간 눈화 단 사라 지라 흐거롤(既而弟子 求分財異居)(번역소학 9:22)
- (10) a. 동싱형테의 난 아들 동싱형테게 난 아촌쫘... 어피겨집동싱 아비동싱누의 아 비동싱누의남진 어피겨집동싱의 남진...어피겨집동싱의게서 난 형테...(번역 노걸대 하 33b-35a)
- b. 동싱형테의 난 아들 동싱형테게 난 아촌 쫘 ...어피겨집동싱 아비동싱누의 아 비동싱누의남진 어피겨집동싱의 남진...어피겨집동싱의게서 난 형테...(노걸 대언해 하 30b-31b)

아래 예 (11)에서는 한자어 ‘친’(親)과 ‘동싱’(同生)이 결합한 ‘친동싱’이 쓰여 이 채롭다. 이것은 곧 16세기에도 이미 ‘친’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져 ‘동싱’과 동의어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동의 관계 때문에 ‘동싱’은 나중에 <아우>라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친동싱’과 같은 결합형은 이러한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귀중한 증거인 셈이다.

- (11) 너희 兩嬭에서 난 형테라 흐니 이 친동싱 兩嬭가 이 동싱룩촌 兩嬭가(번역노걸 대 16ab)

(9a)의 『번역노걸대』와 (9b)의 『노걸대언해』의 예를 비교하면 『번역노걸대』에서 사용되었던 ‘동싱’이 『노걸대언해』에서는 사라진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10a)와 (10b)를 비교해 보면 『노걸대언해』의 예인 (10b)에도 아직 ‘동싱’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17세기까지는 ‘동싱’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이 분명한데, 이것이 <아우>의 의미로 변하게 된 것은 아마도 18세기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동싱’은 원래의 의미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다>이므로 이 말에는 남녀와 상하가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동싱’이 중세의 모든 동기어를 대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의 결과는 손아래 동기만을 가리키는 뜻으로 바뀌었다. 만약 ‘동싱’이 손위와 손아래 동기어 전체를 대체했다면 이때는 앞의 그림 2의 (a)처럼 ‘동싱’이 동기어 전체를 나타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생겼을 것이다. 또한 ‘동싱’이 손위의 동기어를 대체하게 되면 손아래가 손위보다 더 세분되는 부

적절한 체계가 생겨서 앞에서 설정한 보편적 원리 (B), 즉 손위가 손아래에 비해서 더 세분된다는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동성’은 중세어의 ‘아스’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또한 ‘누의’나 ‘오라비’의 영역 가운데 손아래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손아래 동기어만을 통칭하는 동기어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 4.2 ‘누의’와 ‘오라비’의 의미 변화

중세어에서 ‘누의’는 기준인이 남자인 경우 여자 동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이 ‘누의’는 손아래와 손위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된 명칭이었다. 그러나 손위를 가리킬 때에는 수의적으로 ‘누의님’이 쓰이기도 하였고, 손위와 손아래를 굳이 구별하려면 ‘뭇’과 ‘아스’를 결합시켜 사용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현대어의 ‘누의’는 주로 ‘누이동생’의 뜻으로 쓰이며, 중세어처럼 손위 여자 동기를 가리키는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지칭 영역에서는 ‘누나’나 ‘누님’이 따로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누이’는 글말투 또는 시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다만 ‘오누이’나 ‘시누이’처럼 복합어를 이룰 경우에는 온전한 모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누나’나 ‘누님’에서 보듯이 손위 여자 동기를 가리킬 때에는 ‘누의’가 ‘누’로 음절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누의’는 손위의 경우에는 ‘누’로, 손아래는 ‘누이’로의 형태적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줄어든 ‘누’는 현대 중앙어에서는 홀로 쓰이지 않지만 방언에서는 홀로 쓰이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전남 방언이 그러하다. 전남 방언에서 ‘누’는 언제나 손위 여자 동기를 가리킬 뿐 결코 손아래 동기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세어 ‘누의’는 손위의 경우 ‘누나’나 ‘누님’으로 바뀌고, 손아래의 경우에는 새로 등장한 ‘동성’에 영역을 빼앗기면서 현대어에서는 ‘누이동생’과 같은 복합어의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라비’는 오늘날 손위 남자 동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일 뿐 중세어처럼 손아래까지 지칭하지는 않는다. 나이에 무관하던 것이 손위의 나이로 제한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누의’의 변화 방향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오라비’ 역시 접미사 ‘-님’이 결합한 ‘오라비님’과 같은 형이 있어 손위의 남자 동기를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라비’가 손아래를 가리키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sup>12)</sup> ‘누

12)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경우 손위는 ‘오라바~이’, 손아래는 ‘제하 오래비’로 구분하여 쓰인다. 이 경우 잉여적인 표지 ‘제하’와 더불어 쓰이기는 하지만, ‘오라바~이’와 ‘오래비’의 대립만으로 상하를 구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오래비’는 손아래만을 가리

이'가 '누나'나 '누님'과 대립적으로 손아래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이처럼 '오라비'가 손위로 제한되게 된 것은 물론 '동생'이 손아래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동생'이 손아래 영역을 모두 차지한 결과 '오라비'는 자연스럽게 손위의 동기만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오라비'가 차지했던 의미 영역의 일부를 '동생'이 차지하면서 '오라비'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영역인 손위만을 지시하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구나 '오라비'를 대체할 만한 개신형 '오빠'의 등장으로 인해 '오라비'의 존재는 그만큼 약해지기에 이르렀다. 이 '오빠'는 형태면에서 '누나'와 '케'를 같이 하는 것이며, 기원적으로는 호칭어였던 '엄마'나 '아빠'와 같은 형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조항범 1996). 노년층의 언어를 제외한 현대 한국어에서 이 '오빠'는 이제 '오라비'를 거의 대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3 '아스'의 변화

중세어에서 대상인의 성에 무관하게 손아래 동기를 가리켰던 '아스'는 현대어에서 '아우'로 형태를 바꾸면서 중년 또는 노년층에 일부 남아 있지만, 대체로 '동생'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대체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생'과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함께 쓰일 경우 '아우'는 '동생'에 비해 대상인을 더 대접하는 말맛이 느껴진다. 이러한 말맛의 차이는 보다 예스러운 말이 더 품위 있고 격조 있게 느껴지는 일반적 현상에 따른 것이다.

#### 4.4 '언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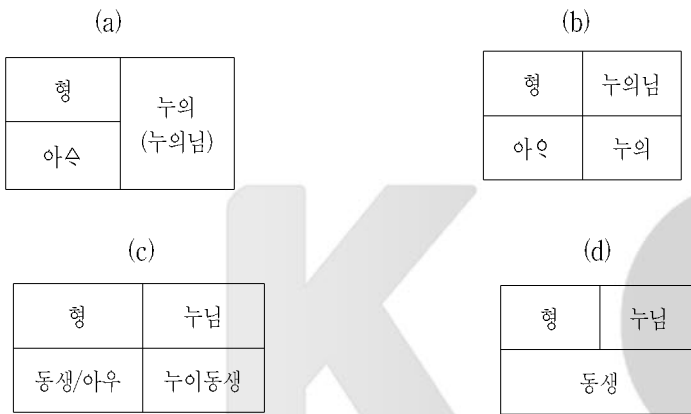
기준인이 여자인 경우 손위의 여자 동기를 가리키기 위해 전통적인 '형' 대신 '언니'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언니'는 새로 등장하였다기보다 원래 있던 말이 그 쓰임을 달리 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언니'는 원래 중부 방언이나 전북 방언 등에서는 기준인과 동성인 손위 동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었다.<sup>13)</sup> 그래서 기준인이 남자인 경우 손위의 형을 가리켰고, 기준인이 여자일 때에는 손위의 여자 동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러한 '언니'의 쓰임은 한자어 '형'이 가졌던 원래의 용법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니'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

키는 용법으로 바뀐 예라 할 수 있다.

13) 전북 부안 지역의 토박이 화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다.

던 동기어였는데<sup>14)</sup>,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니’를 ‘형’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언니’에서 ‘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언니’와 ‘형’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능상의 충돌은 서로의 의미 영역을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맞게 되었다. 즉 기준인이 남자인 경우는 ‘형’, 여자인 경우는 ‘언니’를 사용함으로써 두 낱말의 의미 영역이 배타적으로 구별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로 중부 및 전북 방언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남자는 ‘형’, 여자는 ‘언니’라는 단일한 동기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남녀의 이러한 선택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는 한자어, 여자는 순수 우리말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속성이 한자어와 순수 우리말이 갖는 말맛과 관련이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만 위의 예만을 본다면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중세어에서 현대어에 이르는 동안 동기어가 단계적으로 변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a)는 중세어, (d)는 현대어(중년 이상)의 구조이며 (b), (c)는 그 중간적 단계를 보여 준다.



<그림 4> 한국어 동기어 체계의 변화 과정(기준인이 남자인 경우)

(b)는 ‘누의’가 ‘누님’(姉)과 ‘누이’(妹)로 이분되는 과정이 일어났음을 가정한다.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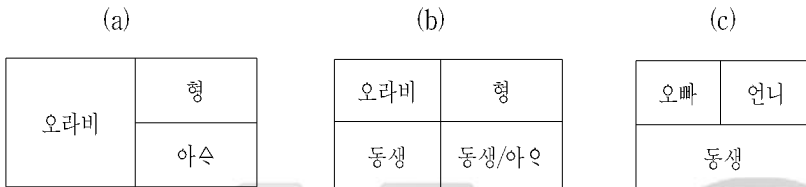
14) ‘조선어사전’에서도 ‘언니’가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호칭어임을 지적하고 있다(조항범 1996:268).

남'은 이미 15세기 문헌에서 '누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형태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누의님'(또는 그 축약형 '누님')에 대립하여 '누의'가 妹의 뜻으로 축소될 수 있었다.

(c)의 '누이동생'은 흥미롭다. 이 단어는 이미 '동생'이 弟로 굳어져 쓰였음을 전제로 한다. 즉 동생 가운데서 '누이'인 경우이다. 이것은 16세기 문헌의 '아스누의'와 구별된다. '아스누의'는 '누의' 가운데 '아스' 즉 '손아래 누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상의 변화는 곧 (a)에서 (d)로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b), (c)와 같은 최대 분화의 중간 과정을 겪어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 준다.

한편 기준인이 여성인 경우도 중세와 현대의 중간에 아래와 같은 (b)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b)에서는 '동생'이 '아스'와 '오라비'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c)에서는 '형' 대신 '언니'가 새로 도입되고, '동생'이 성에 관계없이 확대되어 쓰이는 오늘날의 상황을 말해 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동생'의 의미 변화는 '언니'의 등장보다 앞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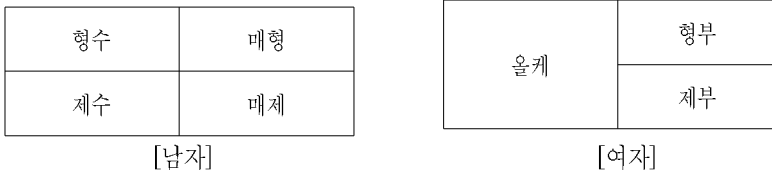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어 동기어 체계의 변화 과정(기준인이 여자인 경우)

### 5. 동기의 배우자

아래 그림 6에서 보듯이 동기간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동기의 명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준인이 남자인 경우, 동기 배우자는 성과 나이에 따라 네 가지의 최대 분화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대 분화상은 근대 및 현대 초기의 동기간 명칭의 분화 구조와 같은 것이다. 반면 기준인이 여자인 경우, 배우자의 분화 구조는 중세어 동기어 분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상인과 그 배우자의 동기어가 서로 대응되는 것이 기능적으로 가장 효

울적이라고 할 때, 배우자의 동기어는 대상인의 동기어들보다는 더 오래된 체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림 6> 동기 배우자의 지칭

왜 배우자의 명칭이 동기간 자체보다 더 세분화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명칭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는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동기간의 배우자 명칭은 ‘올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어로 되어 있다. 한자어에 의한 친족어 명칭은 일반적으로 고유어에 비해 더 세분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동기간의 명칭이 ‘형’을 제외하고는 순수 우리말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배우자의 명칭이 대부분 한자어라는 사실은 너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기준인을 중심으로 핏줄에 의한 명칭은 기본적으로 고유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벗어난 친족 관계에 대해서는 한자어가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기서 ‘벗어난 친족 관계’란 혼인에 의해 맺어진 이차적 관계를 말하며, 이에겐 동기의 배우자, 기준인의 외가, 처가 등의 친족 관계가 포함된다.

기준인이 남자일 경우, 동기의 배우자들은 ‘형제’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형수, 제수’와 ‘매형, 매제’가 그것이다. ‘형제’의 어순은 일차적 관계가 먼저 오고 이차적 관계인 배우자의 관계가 나중에 오는 순서를 취한다. 즉 ‘형수’일 뿐 ‘수형’은 아니며, ‘매형’일 뿐 ‘형매’는 아닌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형의 부인’이란 수식 구조를 그대로 한자어 ‘형수’로 옮겨 놓은 결과이다.

‘매형’에 대해 잘못된 명칭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매형’의 ‘매’(妹)는 손아래 누이를 가리키므로 의미상 옳지 않으며 대신 ‘자형’(姊兄)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형’을 쓰게 되면 ‘매제’와의 변별을 위해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비경제적

15) 동기의 배우자가 그러는 분화 구조는 방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구조가 대상인의 구조보다 늘 오래된 구조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후술할 전남 방언에서도 ‘올케’는 순위와 손아래가 이분되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런 구조는 중앙어에 비해 더 개신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발생한다. ‘매형’과 ‘매제’는 모두 ‘매’를 공통으로 하면서 여기에 ‘형’과 ‘제’가 붙어 그 나이를 구분하고 있다면, ‘자형’과 ‘매제’는 이외에 ‘자’와 ‘매’라는 또 다른 나이의 변수가 잉여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자형’이 비록 옳을지라도 ‘매제’와의 변별을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매형’이던 족한 것이다.

기준인이 여자인 경우 특히 ‘형부’와 ‘제부’의 구분이 흥미롭다. ‘형부’란 곧 <형의 남편>이므로 여기에서도 여자와 언니의 관계가 ‘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언니를 가리키는 옛말 ‘형’이 단독으로 쓰이는 용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복합어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 6. 전남 방언의 동기어

전남 방언에서 동기어의 분화상은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대체로 기준인이 남성인 경우 중앙어와 그 구조는 차이가 없어 중앙어가 겪은 변화가 이 방언에서도 이미 완료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누’라는 지칭이 지금도 중년 이상의 세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은 낱말에 따라 보수적인 면을 보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림 7> 전남 방언의 동기어 체계

한편 기준인이 여성인 경우 전남의 구조는 중앙어의 중세 시기와 같아서 아직 까지도 노년층에서는 ‘언니’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대신 ‘성’을 사용하고 있다.<sup>16)</sup> 이처럼 이 방언에서 기준인이 여성인 경우 ‘성’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16) 기준인이 남성인 경우 나이가 들면서 ‘성’을 ‘성님’으로 바꿔 지칭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여성이 동성인 순위동기에 대해 위계보다는 친밀감을 더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보다는 위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성’은 다른 지칭어, 예를 들어 동기의 배우자 등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준인이 남자일 경우, 동기 배우자의 명칭과 그 분화상은 중앙어와 완전히 같다. 다만 전남 방언의 음운적 특징에 따라 ‘형수 > 성수’, ‘매형 > 매양’, ‘제:수 > 지:수’ 등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

성수	매양
지:수	매제

<그림 8> 전남 방언에서의 동기 배우자의 지칭(기준인이 남자인 경우)

기준인이 여자일 경우, 그 분화상과 명칭은 중앙어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라남도 안에서도 내륙과 서남해 연안 지역의 명칭 체계가 다르다. 그 분화상은 같지만 구체적인 명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우선 중앙어와 전남 방언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전남 방언에서 네 가지의 최대 분화상이 나타나서 ‘올케’에 의해 나이가 구분되지 않았던 중앙어와 차이를 보인다.

오라부덕	성부
동상아덕	지:낭 <sup>17)</sup>

[전남 내륙]

오라부성	성부
동승에지섬	지:낭

[전남 서남해]

<그림 9> 전남 방언에서의 동기 배우자의 지칭(기준인이 여자인 경우)

중앙어 ‘올케’에 대해 전남의 내륙 지방 방언은 ‘오라부덕’과 ‘동상아덕’으로의 분화를 보인다. 여기서 ‘덕’은 중앙어 ‘댁’에 대응하는 이 지역 방언으로서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택호로 쓰이는 것이 그 대표적 용법이다. 예를 들어 함평에서 시집 온 여자는 ‘함평떡’이라 불리는데 ‘함평떡’은 ‘함평-스-떡’의 형태소 구조를 갖는다. ‘오라부덕’은 이와 달리 ‘오라비-우-떡’, ‘동상아덕’은 ‘동

17) ‘지:낭’은 ‘제랑’(弟郎)의 전남 방언형이다.

상-아-덕'으로 각각 분석되는 바, 이때 '우'나 '아'는 관형격 조사 '의'의 방언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풀어 말하면 '오라부덕'은 '오라비의 덕', '동상아덕'은 '동생의 덕'이 되는 것이다.

전남의 내륙이 '-덕'을 사용하는 데 반해 서남해의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는 '-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택호에서도 나타나는데 서남해 연안 지역은 내륙의 '-덕'에 대해 '-네'(예: 불매수네, 불매단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이기갑 1987:101). 따라서 동기어에 대해서도 '-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대신 이 지역은 '성'과 '지섬'을 각각 덧붙이고 있다. '오라부성'은 <오라비의 형>, '동송에지섬'은 <동생의 지어미>와 같은 뜻을 갖는다. '오라부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동송에동송'처럼 '형'과 '동생'의 대립에 의한 지칭이 발달될 만한데 '\*동송에동송'이 쓰이지 않은 것은 한 낱말 안에 '동송'이 두 번 겹쳐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서남해 지역은 '지섬'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지섬'은 어원적으로 '지-ㅅ-염'으로 분석되는 것인데 이때의 '지'는 '집'의 변이 형태이다. 따라서 '지섬'은 <집의 어미>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중앙어 '지어미'에 그대로 대응되는 말이다.<sup>18)</sup>

이처럼 전남은 내륙과 서남해 해안 및 섬 지역의 동기어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가 주로 대상인이 여성일 경우에 나타나며, 남성일 경우에는 두 지역 모두 '성부'와 '지:냥'을 사용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7. 결론

중세 한국어는 기준인의 성에 연동하여 동기어가 결정되는 독특한 체계를 보여 준다. 대상인의 성이 기준인과 동성이면 나이가 변수로 적용되고, 이성이면 나이는 변수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것은 성이 나이에 우선한다는 동기어 결정의 보편적 원리 (A)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 유형적으로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 준다. 이 논문의 그림 2에서 우리는 대상인의 성과 나이를 변수로 하여 논리적으로 가능한 동기어 체계 여덟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d)와 (e)처럼 남성과 여성의 어느 한쪽만 순위와 손아래가 구별되는 경우, 한 언어에서 (d)와 (e)는 어느 한 체계가 홀로 나타나기보다는 두 체계가 동시에

18) '지서미'는 옛말에서도 확인된다.(예: 우리는 마을 지서미라(청구영언)). 또한 함경도 방언에서는 '올케'에 대해 '올지세미'가 있는데, 이것은 '올-것어미'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지세미'의 기원적 의미는 '오라비의 지어미'라 하겠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중세 한국어는 말해 주는 것이다. 두 체계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기준인의 성에 연동한 결과인데, 따라서 체계 (d)와 (e)는 한국어처럼 기준인의 성이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세 한국어의 동기어 체계가 현대 한국어의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동생’ (同生)의 의미 변화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생’은 원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다>의 의미였으나 18세기 이후 손아래 동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바뀐 것이다. ‘동생’은 논리적으로 ‘형’, 순위 ‘누의’, 순위 ‘오라비’ 등을 대체하여 순위 동기를 통칭하는 의미로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의 변화는 순위로의 방향 대신 손아래의 방향을 택하여 ‘아수’, 손아래 ‘누의’, 손아래 ‘오라비’를 대체하였다. 이처럼 ‘동생’이 순위 대신 손아래 방향을 택한 것은 ‘손아래가 순위보다 세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원리가 작용된 탓으로 보인다. 인간은 손아래보다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손아래 동기어보다는 순위 동기어를 세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편적 원리는 ‘동생’이 순위의 동기어들을 대체하는 것을 막아 그 결과로 ‘동생’은 손아래 쪽으로만 침투하게 된 것이다.

‘동생’의 의미 변화 영향을 입어 ‘누의’와 ‘오라비’의 의미 영역도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일어났다. ‘누의’는 ‘누님’이나 ‘누나’와의 대립 때문에 손아래 영역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것도 ‘동생’과 충돌하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한편 ‘오라비’는 ‘누의’와 달리 순위만을 지칭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생’이 손아래를 차지한 결과이다. 이처럼 ‘동생’, ‘누의’, ‘오라비’ 등의 의미 변화로 인해 현대 한국어는 중세어와 달리 순위는 둘로 분화되지만 손아래는 ‘동생’이라는 하나의 동기어만 사용되는 상이한 체계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한국어의 동기어 체계가 분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원리(A)와 (B)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고려한 언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동기어 결정의 보편적 원리 (A)와 (B)의 유효성 여부는 더 많은 언어들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는 동기어 결정의 보편적 원리를 지키면서도 기준인의 성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기준인의 성에 연동하여 동기어를 결정하는 중세 한국어의 모습 등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동기어를 결정하는 인간언어의 보편적 원리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작용하는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 등을 밝히려고 한 이 글의 노력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는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왕한석(1988), “한국 친족 용어의 내적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20:199-224. 한국문화인류학회.
- 왕한석(1992), “한국 친족 호칭 체계의 의미 기술”. 한국문화인류학 24:139-193. 한국문화인류학회.
- 왕한석(2000), “영남인의 친척 용어”. 민족문화논총 22:128-181. 영남대학교.
- 이기갑(1987),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서울: 탐출판사.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서울: 태학사.
- 이기문(2005), “鷄林類事의 ‘姑曰漢了彌’에 대하여”. 국어학 45. 3-16. 국어학회.
- 조항범(1996), 국어 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서울: 태학사.
- 최명옥(1982a), “친족 명칭과 경어법”. 방언6:1-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명옥(1982b), “친족 명칭의 의미 분석과 변이 그리고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논총: 금포 조규설교수화갑기념. 679-696. 대구: 형설출판사.
- 허웅(1981), 언어학. 서울: 샘문화사.
- 周振鶴/遊汝杰(1986). 方言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 Hjelmslev(1959/1971), *Essais Linguistiques*. Editions de Minuit. France.
- Leech, G.(1974). *Semantics*. 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 Lounsbury, F.G.(1964), “The Structural Analysis of Kinship Semantics.” *Proceedings of the IX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1073-93. Mouton: The Hague.

이기갑

kiglee@mokpo.ac.kr

접수: 2007. 3. 26

수정본 접수: 2007. 5. 16

게재 결정: 2007. 5. 31

к с і

KCS I